

A Daily Bread

날짜: 5785 년 시반월 17 일 (2025 년 6 월 13 일)

토라 부분: 베할로테하

주제: 위엄에 대한 망상, 2 부

히람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 미드라쉬는 그를 왕을 위해 화려한 옷을 만든 신하로 비유합니다. 왕이 그가 지은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신하는 왕의 위엄이 마치 자신에게 달려 있기라도 한 듯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옷을 찢어, 더 이상 옷을 지은 신하의 적절치 않은 교만을 보고 견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람은 자신이 성전 건축에 그가 기여했다는 이유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로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성전을 파괴하리니, 이로 인하여 히람은 더 이상 교만할 이유를 갖지 못할 것이다."

느부갓네살도 성경 역사 가운데 교만하였던 한 존재입니다. 그는 그의 특출한 성공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전 세계를 지배했고, 그로 인해 그 자신이 신적인 능력을 부여 받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실제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던 이유는 단지 엘로힘의 영광을 위해 네번 발걸음을 띄어 걸었던 공로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산헤드린 96a). 느부갓네살이 걸었다는 네번의 발자국이란, 히즈키야 왕이 앓고 있었던 병에서 부터 회복 되었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의 아들 메로닥이 듣고는, 편지와 선물을 히즈키야 왕한테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보낸것을 말합니다. 곧 그가 전한 일은 큰 수고가 아닌 소소한 일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자신의 맞이한 성취가 바로 엘로힘을 공경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성공이 스스로의 시야를 흐리게 하였고, 그에게 성공을 주신 여호와 엘로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

바로 왕 또한 강력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는 당대에 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나일강은 미츨라임(이집트)의 자랑이며 그 나라에 풍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의 왕권으로 수백 년 동안 자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그런 부와 권세를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 시대의 바로가 아브라함이 미츨라임(이집트)을 떠날 때 그를 예우하며 호위했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소타 46b).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하여 풍요를 가져다준 것은 야아콥께서 부으신 축복 때문이었습니다(탄추마, 나소 §26). 그러나, 바로는 그와 같은 풍요로움의 근원이신 여호와 엘로힘의 신성하신 도우심을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그 나라의 풍요가 바로 자신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요아쉬, 유다의 왕을 발걸음을 살펴봅니다. 그의 처음은 의로운 통치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가르쳐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그의 지도를 잘 따라 정도를 걷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의 사후, 나중에는 유다의 간사한 방백들의 아침에 넘어갔고, 그들이 자신 앞에 절하며 신격화하자, 왕으로서의 성공, 이 또한 스스로에 의하여 이룬 초자연적 능력으로 믿게 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일탈했습니다.

게마라(홀린 89a)는 이렇게 위엄에 대한 망상을 갖은 타락한 자들을, 우리의 믿음과 의의 조상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갖추신 겸손한 태도들로부터 대조하여 비취 조명합니다. 신명기 7:7의 구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 합니다. 이 뜻은 다음과 같이 풀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원하노라,” 여호와 엘로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위엄을 부여하는 때에도 너희는 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니라.”

Gemara (게마라)는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 검증된 품격은 곧 겸손임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엘로힘께서 그에게 위대함을 부여하셨음에도, “나는 티끌과 재입니다” 라고 창세기 18:27에 말씀 하십니다. 출애굽기 16:8의 기록에 모세와 아하론 역시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시며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시편 22:7에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우리와 같이 적은 자들을 말씀을 보내시어 그분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택하셨고 충성하는 종으로 부르시며 순종하는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최상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여호와와 거룩하신 믿음의 영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위대하신 의의 선진님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 받은 후손입니다. 그 모든 조상들은 참으로 위대하였으며 그들의 위대하심은 언제나 겸손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엘로힘 야도나이 여호슈아 하마쉬아흐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 (Torahlessness)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12-14)

shalom.